

도서지역 분리·독립의 인권적 요인 연구

- 동티모르 사례(1975-1999)를 중심으로 -

김진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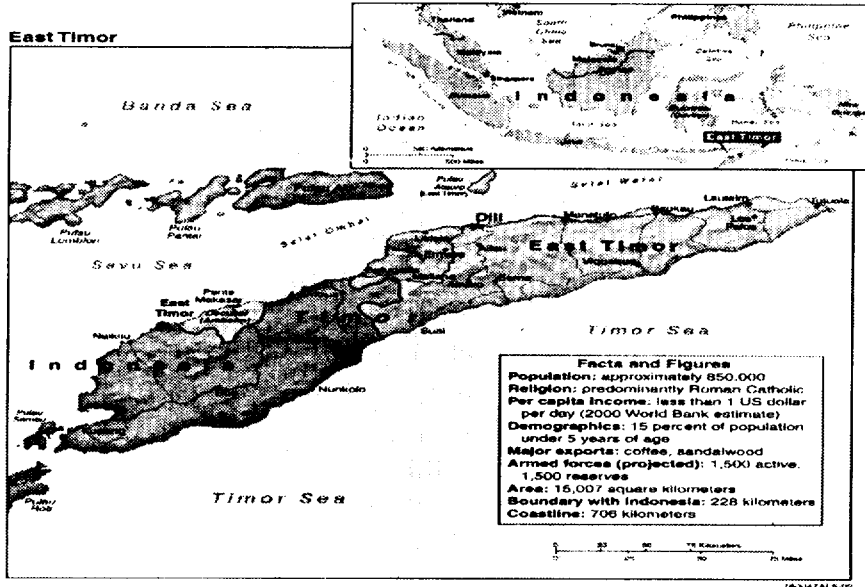
- I. 서론
- II. 동티모르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
- III. 동티모르 분리·독립과정
- IV. 동티모르 분리·독립과 해외 파병
- V. 결론

I. 서론

동티모르¹⁾는 2002년 독립까지 인도네시아의 군사점령 하에 있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제주도의 약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독립 전 인구는 제주도와 거의 맞먹는 55만명 정도이다가 현재는 약 90만명이다. 수백 년 간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았다. 1975년 11월 독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으로 '9일 천하'에 그쳤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된 동티모르 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다수파 카톨릭 계와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남아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친인도네시아 이슬람 계 소수파간에 유혈충돌이 계속돼 왔다. 다시 말해서 자치와 분리·독립의 기로에 선 노선투쟁을 해 왔다. 또한 전쟁과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섬들이 길게 호주 쪽으로 이어지는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신생 독립국이다. 동티모르는 영어로는 East Timor, 포르투갈어로는 Timor-Leste, 자기들 고유 언어인 테툼어로는 Timor-Loro Sa'e 이라고 불린다. 이는 '해 뜨는 동쪽 나라'라는 뜻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인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20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죽었으며,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의 점령 하에서 처참한 인권침해는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년 넘게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티모르의 카톨릭 지도자 벨로(Bishop Carlos Belo)주교와 『모베레민족저항평의회』의 외교대표 호세 라모스 호르타(Jose Ramos Horta)에게 1996년 노벨평화상 수여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우려 섞인 기대를 하게 하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시기가 문제일 뿐 이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을 만큼 동티모르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동티모르가 냉전을 배경으로 약소민족을 노예상태에 빠뜨린 강대국 패권정치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열망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되어 있음을 들어낸다. 또한 우리의 시야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동떨어진 채 편협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

서 이 글은 동티모르 문제의 배경, 침략과 저항을 고찰한다. 그리고 분리·독립을 달성할 때까지의 동티모르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시기적으로는 1975년 동티모르가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인도네시아의 개입으로 자치주로 강제 편입되자, 성공적인 독립투쟁을 벌인 결과, 1999년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립국가로 탄생되는 과정이다.

II. 동 티모르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

동티모르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인종과 언어, 종교 및 문화의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섬은 고대로부터 말레이반도와 호주 및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제도들 사이의 통로가 되어 왔다. 근세이후에는 포르투갈을 통하여 라틴 제국의 카톨릭 문화가 수입되었으며, 아랍과 중국 상인들의 왕래를 통하여 이슬람과 중국의 종교 및 문화에 노출되었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침공당시 70-80%의 주민의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20%가 카톨릭을 믿고 있었고, 30여개의 언어가 사용되었는데, 테툼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²⁾

1515년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발견된 티모르 섬은 1520년쯤 포르투갈인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특산물인 백향목³⁾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곧 네덜란드인이 들어와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져 1661년쯤 섬의 서쪽은 네덜란드령, 동쪽은 포르투갈령으로 분할되었다.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1947년쯤 그 영토로 편입되었고, 동티모르는 1975년까지 포르투갈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동티모르는 1942-1945년 일본군의 지배를 받기도 했는데, 일본군은 주민 6만여 명을 학살하였다.

1974년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자⁴⁾ 동티모르에서는 『동티모르독

2) 인권운동사랑방, 『동티모르- 고난 받는 민중, 공모하는 국제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3호, 역사비평사, 1994

3) 향료, 약품, 세공품 따위에 쓰인다.

4)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 청년 장교들은 무혈쿠데타로 파시스트정권을 타도했고, 새 정권은 자국의 민주화와 식민지의 해방을 약속했다. 동티모르에서는 잠자기 정치운동이 표면화되었다. 즉각 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옹호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것은 곧바로(5월) 『티모르사회민주협회』(ASD T)로 발전하고, 다시 9월에는 『동티모르

립혁명전선』(FRETILIN)과 『티모르민주동맹』(UDT)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주로 교육받은 젊은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은 농촌개발과 토지개혁, 대중교육과 빠른 독립을 내세워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반면, 보수적인 엘리트와 토지소유자, 전통적 지배계급으로 구성된 『티모르민주동맹』(UDT)는 기득권의 상실을 염려하여 포르투갈과 연합을 주장하였다. 지지는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 병합을 주장하는 『동티모르인민민주협회』(APODETI)도 있었다.⁵⁾

1965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500,000명 이상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는 1974년 이후 동티모르에 대한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활동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1975년 8월 『티모르민주동맹』(UDT)의 우파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은 11월 28일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2월 7일 3만 명의 인도네시아 육·해·공군은 전면 침략을 시작하였고⁶⁾ 1976년 6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강제 편입되었다.

포르투갈 새 정권이 레모스 피레스 대령을 동티모르 총독으로 임명한 1974년 11월부터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입성한 1975년 12월 7일까지 약 1년 동안 동티모르 독립정국은 숨 가쁘게 전개되었다. 1975년 12월과 1976년 1월은 학살의 계절이었다. 이 두 달 동안에 동티모르인은 6만명이 살해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3살 이상의 티모르인과 중국인은 모두 살해되었다. 때 마침 회기 중에 있던 유엔 총회(제30차)와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채택하여, 인도네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이미 호주, 미국 등이 암묵의 지지를 획득해놓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이런 결의에 응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며, 1976년 7월 동티모르는 정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스물일곱 번째 주로 합병되었다.⁷⁾

독립혁명전선』(FRETILIN)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ASDT로부터 FRETILIN으로의 발전은 그 정책변화에서 읽을 수 있다.

5) 김열수,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1호, 2003년(봄), 통권 40호, pp.73-75.

6) *Ibid.*, pp.75-79.

7) 양난주, '우리는 동티모르 학살을 막기 위해 전투기를 부쳤다', 사회평론 『길』, 1996. 9

이에 산악지대를 근거로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은 저항하였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77년 사이에 미국이 공여한 대 케릴라 공격기 부롱코 OV-10은 전쟁의 성격을 크게 바꾸었다.⁸⁾ '포위섬멸작전'이 전개되었으며, 1978년 말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 2대 당수 니콜라우 로바트가 전사함으로써 국면은 일단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투항했으며 수용캠프에서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그러나 괴멸될 것만 같았던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은 재기했다.

1981년 이후 산악지대와 점령지를 잇는 지하조직이 확립되었다. 케릴라는 이제 주민 속에 뿌리를 내렸다. 인도네시아 군이 방대한 장비로 소탕작전을 감행해도 점령 하에 성장한 젊은이를 흡수하는 지하조직은 케릴라부대를 항상 수백 명 규모를 유지했다. 한편 점령 하에서 자란 '저항의 2세대'들은 비무장 저항의 주역이 되어갔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경제적 타산의 결과인 '부분적 개방' 정책을 최대한 이용하여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작전을 구사했으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평화시위를 조직했다. 1991년 오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뒤집고 전 세계의 시선을 티모르에 집중시킨 산타 쿠르즈(Santa Cruz) 학살사건⁹⁾은 이러한 투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에서 일어났다.¹⁰⁾

우선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 일체성이 있다.¹¹⁾ 식민지 열강이 도래하기 전 티모르는 약 1,000년 가까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던 슈리비자야야 왕국과 모

8)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이 희생당한 사례로는 동티모르를 꼽고 있다.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군이 동티모르를 침공 하루 전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6일 자 카르타에서 수하르토와 만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키신저는 자신의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동티모르 망명객으로부터 "당신은 우리가 학살당하기 하루 전, 인도네시아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토퍼 허친스(저), 『키신저 재판』, 안철홍(역) (서울: 아침이슬, 2001), pp. 165-93 참조.

9) 동티모르가 1975년 인도네시아의 침략을 받은 지 16년 후인 1991년 11월 12일, 이 섬은 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있는 산타 쿠르즈 묘지에서 인도네시아 보안군은 비무장 시민을 향해 사전 경고 없이 조준사격을 가하여 공식적으로 273 명이상의 시민을 학살하였다.

10) 최운도, "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년(겨울), 통권 47호, pp. 182-3.

11) 조용환, "동티모르 인권상황과 독립운동의 전망", 『계간 사상』, 겨울호(1996).

조파히트 왕국이의 일부였다. 1520년에 모조파히트 왕국은 몇 개의 이슬람왕국으로 분해되었으나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다시 스스로를 편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통일이 완성되기 전에 그 여러 왕국은 유럽의 식민주의 열강의 도래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¹²⁾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같은 작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반드시 대국(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간섭을 초래하여 지역의 불안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티모르는 자립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인도네시아의 점령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동티모르의 후진성은 4백년에 달하는 포르투갈 식민주의가 주민을 무지한 채 방치했기 때문이며, 인도네시아는 도로나 다리,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여 경제 개발에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병합의 논리와 더불어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먼저 인도네시아의 국내적 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공화국이다. 네덜란드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자바인을 중심에 놓고 이들을 다른 종족의 탄압에 이용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자바인의 독립이다. 주변종족들도 독립을 선언하려 했으나 자바인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탄압했다. 국가로서의 일치는 매우 허약하다. 중앙정부는 3-4개 섬 주민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티모르의 독립을 허용한다면 그 뒤로는 연속적인 독립요구가 일어나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유지는 어려워진다.¹³⁾

경제적 이익이다. 티모르 갭에서의 석유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협약에 의하면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다. 그 유전은 세계 15대 유전에 속한다. 티모르 해역의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 국경은 지금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해역은 '티모르 갭' 이라고 불리고 있다. 1971년 이 티모르 갭 심도 3700미터 지점에서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동티모르 문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1971-1972년 티모르 해역에서의 인도네시아-호주간 국경확정 교섭에서 인도네시아는 당초에 두 나라 육지로부터의 중간 점을 이어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했지만, 중간에서 태도를 바꾸어 티모르지구의 남단, 즉 호주대륙붕의 북단을 국경으로 할 것에 합의했다. 이 줄기거에서

12) 동티모르연대모임, 동티모르 소식지 『준비』 1. 2호

13) 양승윤,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제사회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4호(1999).

제외된 구역이 당시 포르투갈령이었던 동티모르 남방 해역이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국경은 정확히 가운데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대륙붕은 분할되어야 한다고 하는. 1973년에 시작될 유엔해양법회의의 결정을 기다리고자 했다. 호주는 이 갭(gap)을 메우기 위하여 포르투갈이나 독립된 동티모르보다 인도네시아를 교섭상대로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티모르 갭에 매장된 원유는 10억 배럴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추정금액이 190억불(약 230조원)규모에 달한다. 호주의 티모르 갭 국경선 교섭은 1976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 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하여 재개되었다. 이것은 동티모르 병합승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호주정부는 포위섬멸작전이 한창이던 1978년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그것이 성공리에 끝나갈 무렵인 1979년 2월에 정식으로 승인했다. 본격적인 국경 교섭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제3회 국제해양회의를 거쳐 당시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양국의 거리가 400 해리 이하인 경우 중간에 국경을 그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과거 포르투갈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 1985년 호주 자원에너지부장관과 인도네시아의 광업에너지부장관은 티모르 갭의 자원을 두 나라에서 공동개발하기로 기본적 합의를 이루고 그 직후에 호주 노동당의 호크 수상은 “호주는 동티모르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승인 한다”고 발표하였다.¹⁴⁾ 그러나 1986년에 호주 신문에 수하르토 일가의 축재의혹이 보도되자 두 나라 관계는 재차 냉각되었다.

국경선 확정은 민감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걸려 아무런 자원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시간을 끌 수 없는 노릇이었다. 1988년 9월 자카르타에서 두 나라 관리들은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 티모르 갭에 협력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경확정을 유보한 채 석유자원의 조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 합의 내용이었다.¹⁵⁾ 포르투갈은 즉각 이 조인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항의성명을 냈다. 이 행위는 자결과 자원에 관한 동티모르인의 정당한 권리를 모독하고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갖는 행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유엔총회 및 안보리 의결에 의한 분쟁해결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포르투갈

14) Sydney Morning Herald, 1999년 9월 18일자.

15) *Ibid.*

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호주 외무장관의 반박은 이랬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의한 동티모르 합병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¹⁶⁾ 1991년 2월, 포르투갈 정부는 호주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인도네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정수락조약에 조인하지 않았으므로 제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두 정부는 재정을 기다리지 않고 광구의 입찰을 감행하고 세계 유수의 석유회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Ⅲ. 동티모르 분리·독립과정

동티모르 분리 독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간에 유혈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이와 관련되어 난민문제는 동티모르가 독립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여기에 따른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동티모르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 난민문제

동티모르 인들의 분포상황이다. 주민투표 직전 동티모르에는 85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민투표 후에 발생한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준동으로 85만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5만명이 인도네시아가 지배하는 서티모르로 이주되었으며, 10만명이 주도인 딜리 인근의 시설에 수용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0만명의 사람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산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¹⁷⁾

서티모르로 끌려간 난민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군과 민병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작스런 상황으로 산으로 피신한 50만명은 아주 소량의 식량을 지니고 산으로 피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16) *Ibid.*

17) <http://timor.peacenet.or.kr>(검색일자: 2005년 8월 12일자)

85만명 인구의 대부분인 75만명이 여전히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들 75만 명을 생존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을 기본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75만명의 안전은 동티모르 자주독립의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국적군은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으로 피신한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난민문제는 국제사회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동티모르를 둘러싼 각국 정부에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주민투표 이전에 서티모르에 난민캠프를 준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친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주민투표 이후 동티모르로 피난을 것에 대비하여 10만명 규모의 난민캠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투표 이전에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민병대의 강제력에 의해 서티모르로 이주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서티모르에 난민캠프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은 민병대에 의한 서티모르로의 강제이주가 주민투표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었다는 것을 말한다.

민병대에 의해 서티모르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현재 쿠팡, 아탐부아 근처의 열악한 시설에서, 과다 수용, 식량부족, 물 부족, 의료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갑자기 한 도시의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도주의적 구호기관들은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전 세계에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이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에게 닿을 수 없는 상황이 난민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서티모르 난민캠프는 인도네시아 군과 민병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유엔은 서티모르 난민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오히려 학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자체에 신중한 상황이다.(한국 정부는 1999년 10월 19일 서티모르 난민캠프 지원금 10만불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NGO들의 목숨을 건 구호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민병대는 난민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면서 동티모르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식량배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민병대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젊은 남자들이 민병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

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민병대에 의한 학살이다. 독립운동세력을 색출하여 이들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난민캠프의 상황은 1999년 10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티모르 난민캠프를 둘러 본 미국의 인권차관보인 해롤드 고(Harold Koh)는 1999년 10월 15일,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이 난민캠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민병대는 난민들에게 동티모르로 돌아갈 경우 다국적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전하였다.¹⁸⁾

인도네시아 군과 민병대는 주민투표 이전부터 서티모르로 동티모르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독립이 대세로 판가름 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무릅쓰고 난민들을 학살하고 강제 이주시킨 목적은 몇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¹⁹⁾ 첫째, 동티모르 독립역량의 약화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 군은 난민들을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동티모르 서부지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치파 민병대는 계속해서 동티모르를 분할을 주장하며 동티모르 서부지역은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병대원들을 강제징집하고, 친 독립 난민들이 동티모르 서부지역으로 귀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셋째,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세력들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체, 이리안자야, 암본 제도 등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독립 세력들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동티모르 민중들을 본보기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서티모르 국경지역에 긴장과 다국적군의 개입을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 이용하여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1999년 9월 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인 사다코 오가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에게 동티모르로의 귀환, 서티모르에 잔류,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이주라는 세 가지 선택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4일 공식적으로 난민들의 자유로운 귀환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은 10월 6일 100명의 난민들을

18) <http://timor.peacenet.or.kr/main-body2.htm>(검색일자: 2005년 8월 15일자)

19) 양승윤, 『인도네시아 정치론』(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pp. 14-15.

항공편을 이용해 동티모르로 귀환시켰다. 유엔은 육로의 경우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에 의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하여 난민들을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동티모르로 귀환을 원하는 난민들을 모두 귀환시키기에는 상당한 기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티모르 난민캠프의 민병대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발표하였고 서티모르 난민 수천 명이 육로를 통한 동티모르로 이동했다. 그러나 서티모르 국경지역에서 민병대에 의해 50여명의 동티모르인이 학살되었다는 구스마오(Xanana Gusmao)의 발표를 볼 때, 민병대의 무장해제와 서티모르 난민들의 육로를 통한 귀환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²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NGO들은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에 의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민병대에 대한 체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대는 위협, 식량배급 중지, 유엔비어 유포 등을 통해 난민들이 동티모르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민병대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NGO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이주가 선택권에 포함된 것에도 문제제기하고 있다. 다종족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분쟁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1980년대부터 진행시키고 있다. 9월 20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주정책을 담당하는 헨드로프리오노 장군은 서티모르의 모든 난민들은 두 달 안에 이주되어 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²¹⁾ 이런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을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서티모르에 있는 동티모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병대를 해체할 것과 난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 그리고 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

서티모르에 있는 25만 명과 달리 주변에 있는 10만 명을 제외한 50만 명의 사람들의 생존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국적군이 점령지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마을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산으로 피신한 난민들의 일부는 독립군 캠프

20) Sydney Morning Herald, 1999년 9월 18일자.

21) *Ibid.*

프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사람들의 상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동티모르에 있는 구호기관들도 이들의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주도인 딜리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계속되었다. UN은 이곳에서 6만 명이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는 쌀을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활동은 안정된 딜리 주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과 독립군 캠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구호기관들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로 인하여 독립군 캠프에 대한 지원을 꺼렸다.

2.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

인도네시아의 대선은 간접선거이다. 인도네시아는 국회구성이 특이하다. 1999년 6월 총선에서 당선된 462 지역구 의원과 38명의 군부 대표가 국회(DPR)를 구성한다. 이 DPR에 135명의 전국지역대표와 65명의 직능사회단체대표가 합쳐져서 7백 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고입법기구인 국민협의회(MPR)가 구성된다. 이 국민협의회는 1999년 10월 20일에 차기 대통령으로 회교지도자인 국민계몽당(PKB)의 압두르라만 와히드 당수를 뽑았다.²²⁾ 그러나 이런 결과는 예상을 빚나간 것이었으며, 국민의 정서와도 다른 것이다. 이는 복잡한 국회구성과 간접선거 방식이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총선에서는 메가와티의 민주투쟁당(PDI)이 33.7%의 득표율로 153석을 차지하였고, 하비비의 집권 골카르당은 120석을 차지하였고 이번에 당선된 와히드의 국민계몽당은 연합개발당에 이어서 51석을 차지하였었다. 대선전 국민투표에서도 메가와티가 52%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와히드는 12%로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²³⁾

이렇게 국민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대선결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국은 안개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9일 민주화 투쟁세력은 이번 대선 결과에서 하비비가 당선될 경우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 혁명정부를 구성할 것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던 하비비는 군부의 실권자인 위란토

22) 조선일보, 동아일보, Jakarta Post, 1999년 10월 20일자.

23) 동아일보, 조선일보, 1999년 10월 20일, 21일, 22일자를 바탕으로 재구성.

가 부통령제안을 거부하고 신임투표가 부결되자 20일에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집권당인 골카르 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선거는 메가와티와 와히드의 대결로 바뀌게 되었다. 와히드의 당선은 구 집권세력과 군부가 와히드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가능했다. 이렇게 와히드는 구 집권세력과 군부가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과 과거청산을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비록 하비비가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메가와티 지지자 및 민주화 투쟁세력은 곳곳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군부 지도자인 위란토가 부통령에 임명될 경우 이러한 시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위를 틈타 군부는 무력 개입과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동티모르를 둘러싼 인도네시아 정치지형은 대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수하르토 독재자의 몰락이후에 군부의 세력을 재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티모르에 다국적군이 투입되자 인도네시아 군부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며 다국적군의 개입을 외세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화하려고 하였다. 이는 민족주의 감정을 기반으로 권력을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군부가 의도한 만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민주투쟁당, 국민계몽당 등 중도파는 호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을 포용하고, 하비비의 성급한 주민투표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다국적군의 개입과 동티모르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직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군부는 또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였다. 군부가 시행하려던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의 승인 없이 군부와 행정부에 의해 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었다. 이는 사실상 쿠데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군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한 동티모르의 평화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더디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티모르 민중과 인도네시아 민중들은 함께 넘어가야 할 공동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군』(INTERFET)의 코소그로보 사령관은 10월 초 동티모르민족해방군인 『팔린틸』(FALINTIL)의 무장해체를 요구하였다. 다국적군은 동티모르 지역의 모든 세력을 무장해체 시킬 것이며, 『팔린틸』 역시 훈련과 승인을 받지

않은 무장세력이기 때문에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스마오는 즉각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팔린틸』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다국적군은 자신과 협상을 통해 무장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구스마오는 나아가 『팔린틸』이 동티모르 치안군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러한 다국적군의 정책은 다국적군이 편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팔린틸』의 무장해제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에 NGO들은 『팔린틸』은 테러조직이 아니며 『팔린틸』은 자위를 위해 무장하였기 때문에 무장해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NGO들은 다국적군이 동티모르 전 지역을 장악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민병대가 완전히 소탕되고, 인도네시아 군이 완전 철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무장해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나아가 NGO들은 『팔린틸』은 동티모르 민중들의 군대이며, 이 군대가 독립과정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팔린틸』의 무장해제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향후 동티모르가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팔린틸』이 동티모르 치안유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유엔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세력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⁶⁾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1999년 10월 5일 향후 몇 년간 동티모르 시민들의 모든 생활을 감독하는 유엔과도정부 수립과 1만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및 경찰의 주둔을 제안하였다. 지난 5월 5일의 협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가 주민투표 결과를 비준하는 절차를 마칠 경우 유엔이 동티모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다. 코피 아난 안에 따르면 『유엔과도정부』(UNTAET)는 향후 2년에서 5년까지 동티모르 지역의 모든 입법·사법·행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 자치와 행정에 동티모르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²⁷⁾

하지만 사나나 구스마오는 9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은 과도정부에 동

24) 손봉숙, 『동티모르의 탄생 나는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보고 왔다』 (서울: 담개, 2002)

25) *Ibid.*

26) *Ibid.*

27) *Ibid.*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또한 일부지역은 유엔이 담당하고 일부지역은 독립운동세력과 유엔이 공동 책임지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운동세력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피아난의 안에는 동티모르인들의 참여를 자문단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동티모르 독립운동세력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유엔과 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의 완전철수와 민병대에 대비한 치안유지 및 인도 지원 사업을 넘어서 독립국가의 법체계와 제도에 대한 기본적 뼈대를 산하고 독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책임지게 된다. 이 과정에 동티모르인들의 참여하는 것은 동티모르의 자주적 역량과 자결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의 주력인 호주와 아세안이 동티모르의 자주적 독립보다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독립운동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티모르의 자결권은 과도정부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임무는 동티모르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동티모르 독립운동세력들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미 독립정부의 구성과 정책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므로 유엔은 동티모르인들이 선택한 독립운동세력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복구사업에 대한 도움과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지난 시기 유엔 역시 동티모르의 합병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다. 또한 지난 5월 5일의 협정에서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에게 주민투표 기간의 치안유지를 위임함으로써 현재의 학살사건을 방조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이 얼마나 동티모르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3.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단 활동

유엔인권위원회는 1999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열어 동티모르 문제를 토의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9월 27일 국가별로 호명하여 찬반을 문

28) *Ibid.*

는 형식(roll call vote)으로 이루어진 이 투표결과,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6개국으로 통과되었다. (한국정부는 이 안에 기권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한 민병대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서티모르로의 강제이주행위와 이주된 난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였다.²⁹⁾ 또한 민병대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관과 협조를 한 인도네시아의 군과 경찰에 대한 비난도 들어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민들의 자유로운 귀환과 구호기관의 접근 및 신변보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난민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그 결과를 56회 인권위원회 회기에 보고하고, 그 전에 54차 유엔총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NGO들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이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인권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군부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³⁰⁾ 10월 9일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발족시켰다. 또한 이들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¹⁾ 그러나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상황과 이에 동조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29) 김열수, *op. cit.*, pp. 85-88.

30) <http://kida.re.kr/limata/world/update/etimor-korea.htm>(검색일자: 2005년 8월 15일)

31) *Ibid.*

IV. 동티모르 분리·독립과 해외 파병

동티모르에 다국적군을 파병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권'과 '학살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인권'과 '학살방지'라는 명분만으로 파병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동안 다국적군과 유엔군의 활동은 '인권'이라는 명분보다는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었다. 사실 군대의 파병은 경제적 손실이 따르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군대의 파병은 이러한 손실과 손상을 보상할 만한 경제적·전략적 이익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동티모르에 다국적군을 파병한 나라들은 각자 나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동티모르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동티모르 독립과정에서 군사력을 지닌 이들 나라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다. 다국적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티모르 독립 세력을 제거하거나 제어하려 한다면 이는 동티모르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동티모르에 대한 파병을 주도하는 나라는 호주와 아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세력은 상호 충돌하는 의도를 가지고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먼저, 아세안(ASEAN)은 회원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아세안 회원국들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은 묵인의 대상이었다.³²⁾ 외세가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 군부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³³⁾ 그리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엔에서 동티모르 인권과 자결과 관련된 결의안이 발표될 때마다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호주 중심의 다국적군 파병이 현실화되자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호주의 개입이 강화될 경우 아세안 다른 국가의 분쟁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물밑 모임을 통해 동티모

32) 변장구, 『아세안 동남아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1999), pp. 60-84.

33) *Ibid.*

르 파병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모임은 인도네시아의 하비비가 강력하게 요청하여 성사되었다. 하비비는 호주와 미국 등 서구에 의해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이 주도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광범위하게 드러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우방국들에게 서구를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파병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이에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파병을 결정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내년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때 1000명 이상의 군부대를 파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파병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요청과 아세안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인도네시아 군의 동티모르 침략과 침략이후의 학살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군이 사용한 무기의 90%는 미국제였으며,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훈련과 원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주민투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민투표이후에 노리는 것에 대해 촘스키는 "예전과 다를바 없이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와해의 위험성 및 대중의 자각과 반론의 확대로 생겨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권력과 경제력의 친미적인 정치엘리트들의 복귀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³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현재 호주를 대리자로 내세우고 자신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은 헬리콥터 등의 장비와 통신부대와 작전부대 400명만을 다국적군에 파병한 상황이며, 이 이상의 파병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인권차관보를 서티모르 난민캠프로 보내 인권상황을 조사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정부의 지난 과오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난민들의 인권상황을 크게 개선시키기 위한 압력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이후 1998년까지 호주의 동티모르 정책 기조는

34) Noam Chomsky, *The Chomsky Reader*, James Peck, (ed.), (New York: Pantheon Books, 1987), pp. 303-312.

35) 이상환, "미국의 인권의교정책: 코소보와 동티모르의 사례비교", 『국제정치연구』, 제4집 2호, 2001, pp. 74-6.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이다.³⁶⁾ 호주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이다. 호주가 이러한 정책을 취한 이유는 티모르 해 유전개발권의 획득, 동남아시아에 개입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호주의 정책을 전환한 것은 1999년 1월이었다. 호주의 총리인 다우너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주권구역이지만 동티모르인들이 자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동티모르에 특별한 자치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이러한 정책변화는 국내외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호주의 지식인들과 젊은 세대는 호주의 동티모르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해서 수행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⁸⁾ 또한 수하르토의 몰락이후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의 미래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키는 상황은 호주에게 정책변화를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호주의 정책전환은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능동적 개입과 호주내의 비판에 대응한 수동적인 반응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호주는 오랜 기간의 자치를 통해서 동티모르인들을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유전과 가스를 통한 장기간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³⁹⁾

주는 1999년 5월 5일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유엔 간에 이루어진 주민투표에 관한 협정이후 동티모르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호주는 1999년 초 자치를 주장하였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자치보다는 독립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한 민병대의 준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다. 호주는 군대 파견을 위한 준비를 주민투표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 좀더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만이 동티모르 지배를 묵인하였다는 비판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동티모르 지하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8월 30일 주민투표이후 발생한 폭력사태를 제압하

36) John H. Esterline and Mae H. Esterline(공저), 『동남아정치입문』, 동남아정치연구회(공역) (서울: 박영사, 1991), pp. 409-13.

37) Sydney Morning Herald, 1999년 10월 11일자.

38) Newsweek 한국판, 통권 397호, 1999년 9월 22일자.

39) *Ibid.*

기 위해 유엔은 평화유지군 파견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호주는 평화유지군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호주중심의 다국적군의 파견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호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동티모르에 관한 주도권을 재탈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만으로 호주의 파병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호주에게는 동티모르에서의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인도네시아의 우호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⁴⁰⁾ 호주는 파병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정책을 수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우호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충돌을 자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하비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0년부터 유엔의 평화유지군 체제로 전환될 경우 아세안 국가들의 파병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호주의 일방적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다. 또한 호주에는 동티모르와 연대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호주의 과거 정책에 대해 성찰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이들은 호주가 다시 한번 동티모르 민중들을 배반하는 것을 제어할 것이고 이는 호주 지배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V. 결 론

동티모르는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가로 탄생되었다. 동티모르는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 인들이 향료무역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20세기가 되면서는 근해에서 막대한 석유매장량이 보고되면서 지역 강대국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동티모르는 1970년대 중반 석유로 인해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던 인도네시아 군부가 정치적 포만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강제 합병했다. 즉 경제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이곳을 20여 년간 먹여 살리다가 독립시키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자 분립 독립을 허용한 것이다. 두 번째로 아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은 현재 종교문제로 분리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말루쿠 군도의 암본이나, 문민

40) 주간동아, 통권, 498호, 2005년 8월 16일자.

정부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파푸아(Papua)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동티모르 독립에 큰 역할을 했던 국제사회도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비중과 아체의 분리·독립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갈등을 묵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명 다양성의 나라이다. 2억 200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192만km²의 국토가 1만 7,508개 도서에 펼쳐져 있는 세계 최대의 군도 대국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1,900km에 걸쳐 길고 넓게 분포해 있다. 국토와 내해(內海)를 합치면 800만km²가 되는 영토 대국이기도 하다. 300여 종족이 600여 종류에 가까운 지역 언어를 구사하며 독자적이고 독립적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분리주의 토양 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종족 간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⁴¹⁾ 지금도 아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러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종족 간 갈등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미온적 정책 집행으로 야기되는 온갖 반민주적·반인권적 폭압행위를 자국의 이익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그들 간의 갈등'이라고 외면하는 현재 국제사회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티모르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냉전을 배경으로 한, 지역 강대국의 패권정치에 휘말려 노예상황으로 전락했다.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이에 저항하는 끈질긴 투쟁 역시 닮았다. 동티모르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적 원칙을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면서 찢어진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의 패권정치 속에서 독립과 안정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두는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들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과연 민주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채워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좌절하고 말 것인가. 이 또한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라는 시점에서 보면, 중요한 시사와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1) 양승윤, "세계의 갈등지도", 『신동아』, 통권 526호(2003년 7월 1일), pp. 492-503.

참 고 문 헌

- 김명기,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외교』 제52호(2002년 1월).
- 김열수,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2003.
- 東南亞政治研究會편, 『東南亞政治入門』(서울: 박영사, 1991).
- 문광건,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전쟁양상: 인도주의적 전쟁,” 『국방정책연구』 (1996 가을).
-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서울: 大旺社, 1999)
- 손봉숙, 『동티모르의 탄생: 나는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보고 왔다』(서울: 도서출판 답, 2002).
- 손혜연, “동티모르 비폭력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양승윤, “동티모르 독립과 국제사회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4호 (1999).
- 이병주·정영제·이춘주, 『은자의 나라 동티모르』(서울: 한국생산성본부, 2001).
- 이상환,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례 비교,” 『국제정치연구』, 제4집 2호(2001).
- 조용환, “동티모르 인권상황과 독립운동의 전망,” 『계간사상』, 1996 겨울호.
- 최운도, “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겨울) 통권47호(2004).
- 크리스토퍼 히친스(저), 『키신저 재판』, 안철홍(역) (서울: 도서출판 아침이슬, 2001).
- Ball, Desmond, “Silent Witness: Australian Intelligence and East Timor,” *Pacific Review*, Vol.14, No.1(2001).
- Budiardjo, Carmel, “The Legacy of the Suharto Dictatorship,” in Paul Hainsworth & Stephen McClosky, (eds.), *The East Timor Questio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Indonesia (New York: I. B. Tauris Publishers, 2001).

Jim Aubrey, "Canberra: Jakarta's Trojan Horse in East Timor," in Pual Hainsworth & Stephen McClosky, (eds.), *The East Timor Questio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Indonesia* (New York: I. B. Tauris Publishers, 2001).

Mallarangeng, Rizal and Liddle, William R., "Indonesia in 1995: The Struggle for Power and Policy," *Asian Survey*, Vol.36, No.2(1996).

Martin, Ian, *Self-Determination in East Timor: The United Nations, the Ballot,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시사저널, 1999. 9. 16

동아일보, 1999. 9. 10~10. 30

조선일보, 1999. 9. 10~10. 30

New Week 한국판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동티모르 관련 뉴스 사이트〉

Yahoo Korea News Search

Naver News Search

CNN

BBC special report

Jakarta post

〈동티모르 관련 사진 사이트〉

Yahoo! Photo Search

BBC: East Timor's historic vote

Time: East Timor's Big Decision